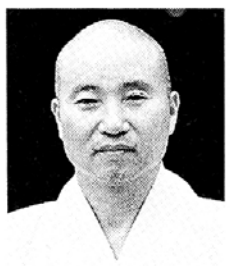
시 론 IMF 극복의 지혜 ③

독불장군은 없다

옛말에 '독불장군은 없다'라는 말이 있다. 세상의, 숨쉬는 모든 것은 서로서로 의지하며 함께 살고 있다. 싫은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지만 어떤 때는 싫은 일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다. 연기법(緣起法)이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으로 인하여 이것이 있게 된다'는 진리를, 서로가 주체와 대상이 되고 존재상 필요불가결적인 요소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세상의 모든 존재는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더 고통받는 이웃에 보시하는 삶 살자

아무리 좋은 약이 있더라도 병이 났을 때만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으며, 의사도 환자가 있어야 그 존재를 알릴 수 있고, 자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다. 병은 약을 필요로 하고, 약은 병으로 인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법 산
〈동국대 불교대학장·본지 논설위원〉

사람은 누구나 내 몸, 내 집, 내 가족, 내 나라 등 '내 것'에 집착한다. '내 행복'에만 시선을 집중하고 '자기의 모양(我相)'만 지키면 영원히 자기 것인양 생각하고 있다. 참으로 어리석은 착상이다.

불교에서의 무아(無我)사상이란 자기만을 고집하는 벽을 무너뜨리라는 것, 즉 아상(我相)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다.

또 불교의 가장 중요한 수행법이 육바라밀인데 그 첫번째가 보시(布施)이다. 남을 돕는다는 것은 말로는 쉽지만 실천하기는 어렵다. 아상의 벽을 허물지 못하면 남의 모양이 보이지 않고, 남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마음의 창이 열리지 않아 세상을 두루 보지 못한다. 남을 돕기는 커녕 독단·독선·독재로 남을 못살게 하고 세상을 시끄럽게 한다.

세상이 허물어지는 판에 '자기의 행복'인들 누가 보장해 줄 수 있을까?

요즈음 IMF 한파가 엄동설한을 더욱 매섭게 몰아치며 사람들의 마음이 날로 경색되어가고 있다. 봄도 잊고 여름마저 앗아갈 사상 초우의 IMF 한파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사람들은 살아남을 걱정만 태산같이 하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부처님을 믿는 굳은 신심으로 의지처를 삼아 기도와 참선으로 마음의 안정을 찾고, 지혜롭게 장애물을 정리해 나아가야 한다. 서로 돕고 같이 산다는 마음, 더불어 사는 보살의 마음을 일으켜 실천해야 한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속담이 진리임을 믿고 허둥대거나 공포에 떨지 말고 초초하고 불안할 때는 더욱 신심을 일으켜야 한다. 우리보다 더 가난하고, 나보다 더 고통받는 지구촌의 이웃을 생각하며 슬기로운 삶을 일구어 가노라면 반드시 따뜻한 봄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대승불교의 보살행을 '공생(共生)'이라고 한다. 공생의 의미는 자기·사회·자연의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다.

첫째, 자기와의 공생은 몸과 마음의 조화도 있겠지만 마음에서 솟구치는 선과 악의 갈등을 잘 다스리는 것이다. 불안·초조·시비 등의 번민은 스스로 조복하여 조화롭게 다스려야 한다. 찰나간에도 몇번씩 뒤집어지는 마음의 갈등은 억제라는 이름의 투쟁으로는 제어할 수 없다. 오직 기도와 정진으로 자신을 다스린다면 마음의 평온은 반야지혜로 찾아올 것이다.

초조 불안할수록 마음을 다스려야

둘째, 사회와의 공생은 남과 더불어 사는 삶에 있어서 남의 어려움과 불행한 고통을 나의 괴로움으로 느끼고, 나보다 남이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세상 사람 모두 각자의 마음을 열고, 자기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릴 때 우리 사회는 분명 평화로운 이웃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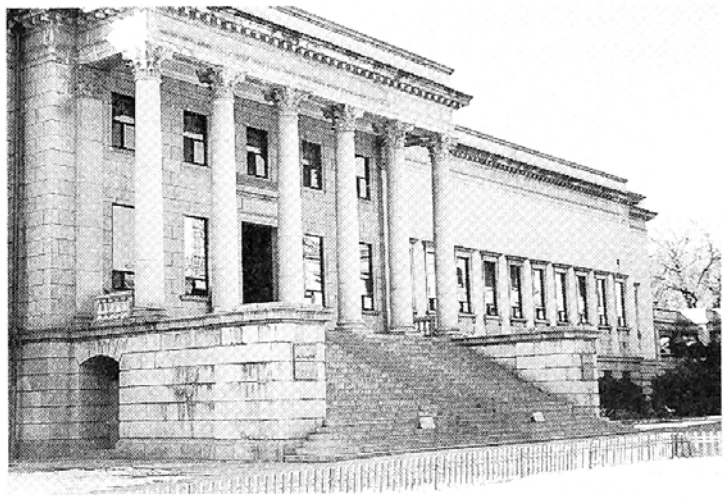
셋째, 자연과의 공생은 개인의 생명이 자연환경 속에서 숨쉬며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하는 것이다. 자원을 아끼고 환경을 더럽히지 않는다면 인간은 자연과 더불어 무한한 생명을 영위할 수 있다.

요즘같이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더불어 사는 삶, 함께 하는 보살심을 일으켜 공생의 의미를 올바로 새기고 실천하자.

열린마당

문화재관리 지자체 이관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가 최근 내놓은 문화체육부 조직개편안 가운데 문화재관리국의 축소와 일부 문화재 관리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이관문제가 거론돼 문화 학술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문화재 관리는 전문성이 요구되는만큼 일반 행정기구의 구조조정과는 다른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것. 문화재관리국의 축소와 일부 문화재에 대한 관리업무의 지자체 이관은 문화재의 보존과 민족문화 계승의 당위성을 저버리는 처사란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다. 이와 관련 조직개편위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여론을 주시하고 있다. 문화재관리국의 개편과 관리업무의 지자체 이관을 반대하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각단체의 반대입장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문화재관리국의 향방이 주목되고 있다. 사진은 덕수궁내 문화재관리국 전경.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위원장 박권상)가 문체부 조직개편과 관련, 15일 확정 발표한 시안은 두 가지. 제1안은 '문화부'로의 개편, 체육기능을 대폭 축소, 대한체육부 등 관련 민간단체로 이관하고 문화재관리 기능도 국보·보물 등 중요문화재를 제외한 모든 것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 경우 문화재관리국은 내국화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제2안은 문화체육부의 기능을 대폭 줄여 교육부와 통합, 가칭 '교육문화부'가 되는 것이다.

"지자체 문화재관리 역부족"

범하 〈통도사 박물관장〉

국가 경제위기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새정부가 출범하기전 상당히 의욕적인 자세로 정부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문화재 관리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일반 행정기구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문화재관리국과 그 업무를 조정하려는 것은 매우 염려스럽다.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의 보호와 발굴이라는 측면보다는 지역개발 이익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현재 구성된 지방문화재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채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서도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관련 업무 능력 부재는 쉽게 드러나고 있다. 전국적으로 발굴되어 그 가치를 조명 받아야 할 문화유산은 부지기수다. 이 같은 현실에서 정부조직의 개편이라는 논리에 문화재 관리 업무가 축소되고 분산된다는 것은 21세기 전통문화를 통한 세계화 작업을 포기하는 것일 뿐이다.

일괄적인 조직의 개편보다는 우리민족 고유의 전통가치와 자산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개발 관리할 수 있는 거시적 개편이 우선되어야 한다.

"오히려 문화재보호법 보완"

정재훈 〈前 문화재관리국장〉

문화재관리를 중앙정부가 관장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한다면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훼손되거나 상품개발의 도구로 전락될 가능성이 높다. 재력있는 상공인이 지방의회에 대거 진출해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주도하는 지자체가 문화재보호는 아랑곳없이 개발에만 주력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또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지자체에는 전문 인력이 없다는 점이다. 비전문가 한 두 사람이 날로 증가하는 지방문화재를 관리한다는 것은 민족문화보존의 적신호라고 아니할 수 없다.

IMF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우리 민족 고유의 본질과 개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관리국을 내국화 하기보다는 청으로 승격, 문화재관리의 고유한 기능을 살리는 용단이 필요한 때다. 문화재보존관리는 전문가가 해야 할 일이지 행정가가 할 일은 아니다. 내국화할 경우 집행업무라든가 장관 등에 따라 정책이 좌우되기 때문에 원형보존 의미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청 승격과 함께 문화재보호법을 보완, 정부조직 변화나 국토개발과정에서 문화재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적극적인 정부조직 개편이 필요한 때다.

"廳으로 승격…문화정책 강화"

임효재 〈한국선사고고학회장〉

우리나라는 전국토가 박물관이라고 불리울 만큼 전국에 많은 문화유산이 산재해 있다. 이 가운데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문화유산이 없다. 문화유산은 국가의 소유이므로 마땅히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 만약 문화재관리를 개발우선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지자체에 맡긴다면 최근 경주의 예처럼 문화재 훼손이 가중될 것은 뻔한 일이다. 더욱이 개발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지자체장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문화재관리의 지자체 이관은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오히려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걸맞게 문화재관리국을 '청'으로 승격시켜 문화대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IMF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본다.

60년대 초 문화재관리국과 같이 출범한 통계국, 치안국 등은 모두 청으로 승격됐는데도 문화재관리국만이 '국' 체제로 남아 있다. 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한 무관심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문화가 상실된 채 경제적 논리만으로 지배되는 사회는 21세기 문화선진국의 대열에 설 수 없다. 효율성과 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문화재관리국의 기능을 극소화하는 것은 문화정책이 퇴보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겠다.

"비문화적 발상 훼손 우려"

김정기 〈前 국립문화재연구소장〉

문화재는 중요한 문화재, 중요하지 않은 문화재로 나눌 수 없다. 중요문화재는 중앙정부가 관리하고 중요하지 않은 문화재는 지자체가 관리한다는 정부구조개편심의위원회의 제안 자체가 바로 비문화적인 발상이다.

한나라의 문화정책은 통일성이 있어야 한다. 문화재관리는 중앙정부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만약 지방에서 유물이 발견됐을 경우 중요문화재는 국가에서 관리하고 그렇지 않은 유물은 지자체에서 관리한다면 혼란만 가중돼 유물관리의 통일성을 깨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해당 시·도가 개발우선 정책을 펴고 있는 이때 중앙의 문화재관리국이 없다면 문화재 훼손은 일일이 막기 어려울 정도로 가중될 것이다. 지자체 어느 한 곳에도 전문가가 없는 현실에서 국가적인 문화재를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한 지자체에만 맡길 수는 없다. 중앙정부의 철저한 견제와 지도속에 지자체와의 밀접한 협력관계가 우선돼야 할 것이다. 지난해에는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문화재관련 제도와 법 개정을 위한 노력이 활발했다. 이러한 노력이 허사가 되어서는 안된다. 문화재관리국의 '청'승격과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통해 한층 성숙해진 문화대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해야 한다.

차기정부 문화재정책 문화재위·고고학회등 이구동성 '반대'

이 경우에도 주요골자는 1안과 별 차이가 없다.

이에대해 문화계 일각에서는 전세계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IMF위기에 직면, 문체부를 축소해야 한다는 상황론은 설득력을 얻고 있지만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문화재관리국의 기능강화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영역과 기능축소에만 신경쓰고 있다고 한다. 특히 문화재관리의 지자체로의 이전에 대해서는 비판의 소리가 높다.

문화재위원회(위원장 고병익)는 20일 건의문에서 "문화재관리가 전문인력이 부족한 지자체로 이관된다면 지역이기주의와 무분별한 개발로 문화재 훼손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문화유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가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해 문화재관리청 설치법안을 추진해왔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고고학회(회장 김종철)도 같은날 성명을 통해 "비지정 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한다면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며 "민족문화유산의 운명과 직결되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재관리국의 내국화는 전문성을 약화시키는 것이며 문화부를 교육부로 통합시키자는 것은 문화는 어디에 두든 무방하다는 식의 발상이라는 비판도 거세다. 강내희 중앙대교수는 민예총이 15일 주최한 '문화정책 포럼'에서 "기존 문체부 업무 중 청소년·체육·관광기능을 분리, 타부서로 이관하고 문화재관리국도 문화재보호청으로 분리, 독립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기석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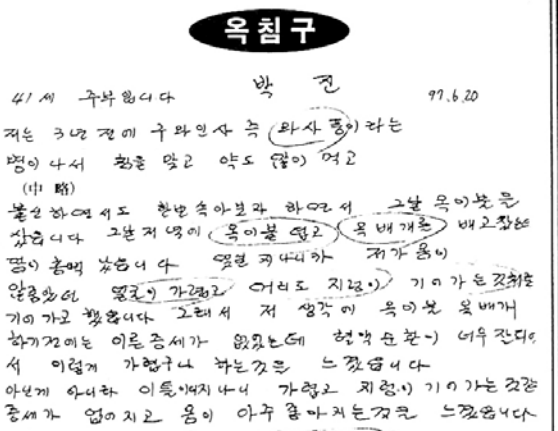
현대불교 지사지국 안내

부산지사	051-634-5114
광주지사	062-375-9986
대구지사	053-768-8008
목포지국	0631-281-2534
속초지사	0392-636-3923
북인천지국	032-541-8770
청주지사	0415-63-3873
강릉지사	0391-43-5599
인천지사	032-461-3461
춘천지사	0361-241-0633
대전지사	042-625-1080
안산지사	0345-411 1580
진주지사	0591-747-0106
마산·창원지사	0551-84-0735
공주지국	0416-55-0020
고성지국	0556-72-0078
예산지국	0458-33-5097
포항지국	0562-252-7749
고양지국	0344-912-2323
영주지국	0572-34-3429

춘천 옥산가옥의 신비!

아래와 같은 사연 수백통씩의 건강체험 사례집이 4권에 이릅니다. 성인병 난치병에는 玉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십시요.

옥침구



백옥 팔반 염주 옥지 옥옥옥 벨내이 트외불

※ 춘천옥이라는 제품은 수입 유사품옥입니다 진옥은 玉山家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50번지 쁘렝땅백화점 지하상가 을지로쪽입구 玉山家 是空合掌 777-0105(우편판매가)

부처님조성·석탑·석등·석비·부도·불사건축·제작시공

효성석재공예사

귀의 삼보하옵고.
석불상 조각을 비롯하여 석탑 석등 등 사찰 경내의 모든 설치물과 조각품 뿐 아니라 어려운 현장 작업도 가능하오니 언제든지 불러주시기 바라옵니다

김 인 호 합장

◆ 주요불사실적 ◆

- 남한산성 성불사 - 아미타석불 석탑 석등 공덕비 제작설치
- 안 양 삼성사 - 석가탑 석등 사자상 제작설치
- 인 천 송도선원 - 원형천지탑 및 십이지신상 조성
- 경기연천 육군5사단 205부대(옛 심원사) - 아미타불 조성설치
- 日本京都 영산법화사 - 석물제작 수출 (그외 다수)

주소: 경기도 포천군 소흘면 송우리 227번지
전화 : 전시장 (0357)542-1527 야 간 (0351)874-4685
공 장 (0357)542-15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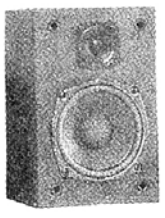
사찰 법당 음향설비

-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
- 뛰어난 소리가 보장되는 -
- 가장 경제적인 법당 음향시설

(상담역) 음향 연구가 무선설비기사 김 문 화 아마추어 무선사 HL 1ACU

무선 마이크 전문

법당전용 스피커 YM-520 개발



YM-520
2 way : 벽걸이형
100W

전국 사찰 법당의 소리를 웅장한 소리로 바꿔 드리겠습니다.

스피커 한조(2개) : 500,000원
● 설계자 : 음향연구가 金文華

최고의 吸音力 법당의 필수품

스페셜마이크

T - 7

초 고감도
유선핀 마이크
가격 50,000원

TM-108
염불전용 목걸이 마이크
■ 공급가 : 85,000원

- 가장 멀리서 들어간다!
- 자체에서 흡음력을 조절한다!

DX-707
스페셜 마이크
가격 200,000원.

유코전자
본사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226-7
☎(02) 697-9976, 605-3235
FAX (02) 695-9676